

# 연이은 전통시장 화재 불구 보험 가입은 '저조'

송정 5일시장 가입률 51% 그쳐  
대다수 상인 고령층 가입 어려움  
노후 건물 탓 민영보험 승인 거절  
미등록 점포 등 가입 요건 미충족

“화재 보험 가입? 우리도 중요한 것 알지...”

18일 오전 찾은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에는 지난 화마를 뒤로 하고 아침잠이 들어섰다. 단골 주민들과 방문객들로 시끌벅적했다. 그러나 시장의 다른 한편엔 지난 14일 새벽 화재로 검게 변해버린 점포 38칸이 눈에 띄었다. 여전히 흠날리는 검은 잿가루는 그날의 화마를 떠오르게 했다.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한 점주의 표정에서는 허탈함이 역력했다. 이번 화재로 점포가 다 타버려서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송정5일시장은 이번 화재로 점포 240칸 가운데 38칸이 전소돼 14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22일 서구 양동시장에서도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점포 6칸이 소실돼 8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광주지역에서 연이어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진보당 김명숙 광산구의원이 발표한 광산구 6곳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송정5일시장의

보험 가입자는 51%였다. 총 74곳 점포 중 민영화재는 18곳, 화재공제는 20곳이었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광산구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1월 말 기준 광주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7.4%, 총 2546개 점포 중 952점포에 불과했다.

화재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의 민영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로 나뉜다. 특히 화재공제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런데도 이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송정5일시장의 경우, 피해 점주 14명 가운데 5명은 어떠한 화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피해 상인 2명은 미등록 점포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초 화재공제에 가입을 신청했다는 상인 최모(70)씨는 “화재가 진화된 이후인 14일 낮에 가입이 승인돼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송정5일시장의 상인 대다수가 가입이 안 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까다로운 보험 가입 절차에 대한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임용태 송정5일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피해 상인의 평균 나이가 65~70세”라며 “절차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나이로 인해 점포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한 상인은 “낡은 건축물이라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민영 보험에 승인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화재공제라고 불리는 공단 보험을 신청하는데, 이 또한 많은 조건이

있어 승인 절차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도 보험 가입 저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시장에 상가 2곳을 운영 중인 임모(68)씨는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점포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70대의 고령층인 대다수 상인들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이 재해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위소득 75%(4인 가족 기준 457만원) 이하의 영세 소득 피해 상인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모기 유충 방제**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방역반원들이 18일 중흥동의 한 다중이용시설 정화소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유충구제 방역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모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정화소와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양배 기자

## 신속한 화재 대처로 대형피해 막은 전직 소방관

효령동 비닐하우스 화재 포착  
소화기·마른 모래로 초기진화

화재 현장을 지나던 퇴직 소방관 출신 버스기사가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피해를 막아냈다.

18일 광주 북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께 북구 효령동의 창고겸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내부 야궁이에서 시작된 불은 비닐하우스 벽면을 태우며 빠르게 번져나갔다.



당시 노선을 따라 근처를 지나던 버스기사 황용준(61·사진)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연기와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포착했다. 화재 현장에 버스를 정차한 황씨는 차량 내부에 비치한 소화기와 비닐하우스 근처의 마른모래 등을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오전 광주 지역에 강한 바람이 이어진 탓에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

었으나, 황씨의 신속한 진화 덕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황씨는 광주에서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 6월 동부소방현장지휘팀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현재는 광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준씨는 “퇴직한 몸이지만 아직 소방대원의 정신이 몸에 남아있는 듯 불길을 보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마무리돼서 다행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북부소방은 감사의 뜻을 담아 황용준 기사가 재직 중인 운수회사에 소화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 광주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 판매 교사 2명 적발

감사원 감사...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던 광주 고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2000만원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겸직허가 신청 없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 행위를 했으며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숨기고 수능 모의고사와 수능 출제위원으로도 수차례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광주의 또다른 사립학교 소속 교사 B씨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내역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해친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해당 사립학교 교원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